

41.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신앙고백

찬 송 :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사도행전 3장 1-10절

말씀묵상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톨의 돈과 음식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는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걷게 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 관심을 가졌습니다(4).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걸인은 구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걸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우리를 좀 보시오.”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은 성전을 향했지만, 제자들의 눈길은 걸인을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눈길을 보냈고, 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5-7).

걸인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걸인은 이 일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 함께해 주었습니다(8-10).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걸인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톨의 돈과 음식은 적선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인을 성전에 데려다 주거나 같이 예배하러 가는 이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걷게 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맺는말.

성전으로 가던 두 제자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적용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중앙아시아선교(여기도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둔전아침묵상

카카오톡 둔전교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안내는 이번 주 토요일(16일)까지만 발송될 예정이오니 주보 4면을 참고하셔서 채널 추가 후 아침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 ‘둔전교회’ 검색 → 채널추가

4. 대입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보기도

좌석에 부착된 대입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수험생: 김예찬, 심예은 / 취업준비생: 백승민, 안명균)

5. 릴레이 기도자 모집

하루 30분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독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독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7.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헌물

이창우·정지영집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 휘 자 : 이영준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40장 다같이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51.시편 118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83장 다같이
기도	1부:한춘자 권사 2부:정지영 집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25장 1-13절(신약 43면) 인도자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상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니라(8) 열 처녀의 비유 임창세 목사

10 월 봉사위원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31일
예배 기도	1부	한춘자	남영옥	이말자	나차금
	2부	정지영	윤종찬	최광순	최진수
	3부	비미연 영상예배			
	수요	이미숙	이복음	전옥자	정재하
헌금위원		1부 김정예	2부 박연문 정영미		
안내위원			최진수 최광순		

결 단 찬 양 . . .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 . . 다 같 이

헌 금 기 도 인 도 자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송 영 행 복 다 같 이

※축 도 임창세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씀 : 정진영 목사	말 씀 : 임창세 목사	

【마태복음 25장 1-13절】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

< 예 배 안 내 >			
주 일 예 배	구 분	시 간	장 소
	1부	오전 8:00	본 당
	2부	오전 11:00	본 당
교 육 부 서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유 치 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 당

<2021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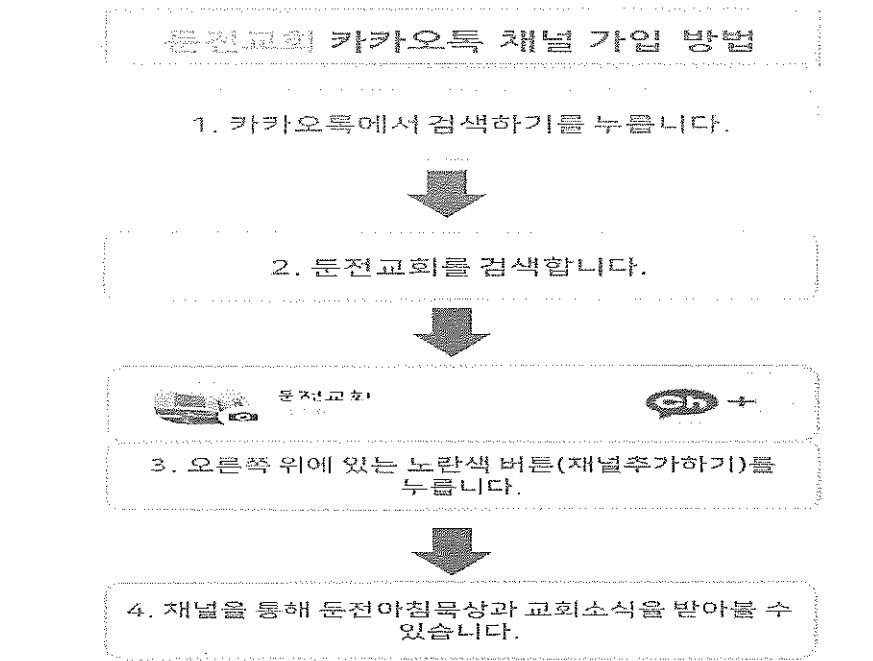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종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장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 **십일조**
임창세·주리에 강인식·심은영 김성혜 남효정 박영애 박해영·신동희 석장환 신미정 박심원·윤관순 이말자 임완민·곽삼화 정재현 정종언 정진영 천광우 최영란 최진수 추사순 한규봉
 - ◆ **감사헌금**
임창세·주리에 김수매 김용수·이미숙 김주용 남효정 박연우 안순조 유인숙 유향순 이미옥 이정훈 임미리 임지은 전명숙 정귀자 차성희 최운교 최인선 최진수 추사순 무명
 - ◆ **선교헌금**
노흥섭 무명
 - ◆ **건축헌금**
손영애 임완민·곽삼화 추사순 한춘우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338,000	3,466,000	1,644,000		280,000	6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